



어린이 성경탐험을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분반 공부 현장을 돌아볼 때마다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영적 부담감을 느낀다.

“오늘은 분반 공부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 한마디는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나 가르치는 우리들에게나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다.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잠 29:18)고 말한다. 사사 시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등질 때마다 이들의 인격과 삶은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은 그들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목격해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꾸어주되 꾸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복된 삶을 누렸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멸시하며 불순종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방만히 할 때 이들은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못하며, 아래에 있고 위에 있지 못하며, 꾸러 다니지언정 꾸어주지 못하는 저주스런 삶을 살아야 했다. 한국 주일학교 교육 역사상 지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 어둡고 지루해하며 식상해한 때는 없었다. 초라한 예배당에 가마니 짝을 깔 바닥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가르쳐졌고 배워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다 못해 식상해진 우리의 교육 현장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울어야 할 영적인 위기다. 그러나 속상한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서 미국인 강사가 '위기' 라는 한자를 써 보이며 위기란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는 의미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 지금이 위험의 때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의 때인 것도 사실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관심과 열정을 끌어모아야 할 때다.

왜 이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마음에서 식상해지고 멀어졌을까? 멀티미디어의 발달, 어린이들의 바쁜 삶, 부모들의 관심의 부재, 영적인 일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 등 외적인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가르치는 이들에게 그 상당한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주셨다.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탁월하게 세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열악한 교육 형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다. 이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 교육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실수를 생각해본다면 약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다.

첫째,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초점이 성경 내용의 주입에 있고 학생들의 영혼과 삶의 변화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엡 4:13-15) 자라기를 바라신다. 성경은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가르쳐지는 이유가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5-17).

그러나 우리는 성경 ‘으로’ 사람 ‘을’ 가르치는 대신 성경 ‘을’ 가르치는 일에 주일학교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왔다. 우리가 섬기는 어린이가 하나하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어린이들 하나하나씩은 각각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성경 자체의 내용을 들려주는 일에 몰두해왔다. 마치 우리 어린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나이순으로 나열하라고 하시거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착지 경계를 논하라거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지를 약속하라고 물으실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 유명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 7:24-27).

한마디로 우리는 가르침의 초점을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에만 두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거나 저거나의(either or) 시각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both and) 시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성경으로 사람을 가르치라는 소명을 받았다. 이것은

교사의 제사장적 소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려면 이쪽 언덕인 성경의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하고, 저쪽 언덕인 어린이들의 영적인 필요와 삶의 필요를 드러내야 하며, 드러낸 진리로 드러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둘째,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의 단편들을 다루는 데에만 집중하고 그 단편들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라는 맥락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데 잘못이 있다. 성경을 배우는 일은 수백 개의 작은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일과 비슷하다. 한 조각 한 조각의 의미와 가치는 전체 그림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러려면 작은 조각을 이리저리 맞추는 일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파악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공부에 식상해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디에 들어가 맞는지도 모르는 성경 이야기의 단편들을 끝도 없이 주입당하는 데 있다. 또한 성경에는 단골 메뉴처럼 제공되는 몇 개의 뻔한(?) 이야기들 외에는 -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등 - 없는 것 같은 단조로움을 느끼는 것도 큰 그림을 보여주는 데 실패한 우리의 책임이다. 모든 배움이 그러하듯이 제일 먼저는 큰 그림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뒤에 그 큰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조각들을 분석해주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조각들이 어떻게 큰 그림으로 종합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식상하게 여기는 셋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치지 못한 데 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그것을 받는 대상 그룹의 눈높이에 맞추는, 가르치는 이로서의 섬김을 제공하였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 9:19-23).

나는 종종 바울이 우리 가운데서 어린이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면 그가 우리처럼 일
할까를 생각해본곤 한다. 어린이, 그것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려면, 더욱더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을 해야 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의 눈높이에 맞게 충분히 재미가 있어야 한다. 이들의 필요
의 눈높이에 맞게 충분히 적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들의 현실의 눈높이에 맞게 모
든 가능한 현대적(contemporary) 교육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파이드온 선교회에서 소개하는 성경탐험 프로그램은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고안된 한 가지 대안이다. 성경탐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처럼 소중한
성경을 실제적이고 흥미진진한 그들의 삶의 길잡이로 붙들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
다. 이 성경탐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성경이 ‘특별한 종류’의 옛이야기 책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만 배우고 가르쳐지는 종교적 경전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들의 삶
에 직접적인 힘을 주는 삶의 지침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성경탐험 프로그램
은 그동안 주일마다 조각조각으로 배워온 성경의 단편들이 어떻게 성경 전체의 큰
그림과 연결되고 들어맞는지를 보도록 도와준다. 성경탐험은 학령 전 시기에 1번, 초
등학교 시절을 통과하면서 2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타고 흐르는 전 성경 역
사의 큰 맥을 배우도록 3년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제1년에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
지, 제2년에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의 구약의 역사를, 제3년에는 400년 중간기
와 신약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큰 줄기는 성경의 파노라마(Walk Thru the Bible) 프로그램을 따
른다. 이재학 목사와 함께 디모데 성경연구원을 조직하여 신구약 파노라마 한국 프

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언젠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소망을 가져왔었다. 큰 줄거리를 친구약 파노라마와 맞춘 것은 이 어린이들이 중학생 이상이 되면 배울 성인용 성경의 파노라마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어린이용 프로그램은 그 뼈대를 사용하면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 학습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어린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온 이야기 조각들이 성경의 큰 그림 속에 착착 들어맞는 신기함을 즐기게 될 것이다. 게다가 성경의 활동 학습을 통하여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면서 성경 공부에 대한 비뚤어진 개념 역시 교정될 것이다. 이 어린이 성경탐험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과 당신이 섬기는 어린이들 모두 한평생 잊지 못할 복된 성경탐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양승헌 목사